

1 개요

금덕본향 검은댁잇당 본풀이는 애월읍 유수암리 검은댁이 마을의 본향당에 얹힌 신화이다. 홍좌수는 꿈에 본향신 송씨영감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라는 말에 따라 당을 설립하고, 해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 역시 송씨영감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니 더욱 송씨영감을 정성껏 모시게 되었다.

2 내용

이 당은 마을을 설촌한 홍좌수가 설립하였다. 홍좌수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어 장성한 뒤에는 제주 목사와의 다툼 정도였다. 하루는 꿈을 꾸니 백발노인이 나타나 자신은 마을을 지키는 송씨영감이니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여 제향하라고 하였다. 홍좌수는 마을 사람을 모아 의논하여 당집을 짓고 송씨영감을 제향하기 시작하였다. 홍좌수가 잘 살아가니 해변 사람들이 홍좌수를 얹애기로 하였다. 다시 홍좌수 꿈에 송씨영감이 나타나 아무 때 정명이 다 할 것이라 하고 대처할 방도를 알려주었다. 날이 밝자 홍좌수는 제주 목사에게 찾아가 사령을 빌려 예방을 하여 목숨을 부지하였다. 홍좌수는 송씨영감의 은덕에 감사하며 본향을 잘 위하니 마을에서도 자손이 늘었다. 당에서 제를 지낼 때는 홍좌수도 언급하곤 한다.

3 특징

애월읍 신엄리에 거주하던 양태옥 심방이 전승한 자료이다. 당신의 내력보다 당을 설립한 홍좌수의 내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같은 마을 다른 동네의 당신본풀이인 <금덕리 당 종신당 유수암당> 본풀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해변 사람이 유수암에서는 '되놈'으로 설정되었을 뿐이다.

4 핵심어

홍좌수, 설촌, 제주 목사, 백발노인, 송씨영감, 검은댁잇당, 유수암리

5 원전 서지사항

금덕본향 검은댁잇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